

AR 초대장에 'AI 총장' 등장... 대학가, 비대면 입학식 혁신

첨단 기술 활용해 이색 입학식
Zoom·유튜브 통해 온라인 진행
성균관대, 'AI 총장' 나타나 눈길
동국대, 학생 3000명과 댓글 소통



코로나19 여파로 대학이 온라인 입학식을 여는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는 일방적인 온라인 영상 게시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AI)·증강현실(AR) 등 최첨단 기술을 총출동해 이색 입학식 꾸리고 있다. 성균관대는 입학식에 AI총장이 등장해 '진짜' 신동렬 총장과 마주하는 모습을 그려 대학가 주목을 받았다. /성균관대 제공 동영상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세 속에서 새 학기를 맞은 전국 대학이 온라인 입학식을 통해 신입생을 맞고 있다. 지난해는 사상 초유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대부분 대학이 입학식을 취소했지만, 올해는 대학 역사상 처음 비대면 입학식이 마련됐다. 특히 일부 대학에서는 일방적인 온라인 영상 게시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AI)·증강현실(AR) 등 최첨단 기술을 총동원해 이색 입학식을 꾸렸다. 25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감염이 지속하면서 대학들은 유튜브나 줌 등을 활용해 기존 입학식 행사를 비대면으로 대체하고 있다. 숙명여대는 지난 23일 2021학년도 입

학식과 신입생 환영회를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했다. 줌과 유튜브, AR 기술 등을 활용해 비대면이면서도 마치 한 자리에서 함께 축제를 즐기는 것과 같은 현장을 구현했다. 이를 위해 숙명여대는 학교 마스크트

인 눈송이 캐릭터를 AR로 구현한 온라인 초대장을 사전에 2500여 명의 신입생에게 보냈다. 학생들은 입학식 당일 설치된 앱을 실행해 AR 눈송이의 안내에 따라 유튜브 라이브로 행사를 감상했다. 인 눈송이 캐릭터를 AR로 구현한 온라인 초대장을 사전에 2500여 명의 신입생에게 보냈다. 학생들은 입학식 당일 설치된 앱을 실행해 AR 눈송이의 안내에 따라 유튜브 라이브로 행사를 감상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2021 버추얼 라이브 페스티벌”로 명명해 마련된 입학식은 줌(Zoom)과 유튜브, 증강현실 기술 등을 활용해 비대면이면서도 마치 한 자리에서 함께 축제를 즐기는 것과 같은 현장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성균관대도 입학식에 AI 총장이 등장해 대학가 주목을 받았다. 대학에서 AI 총장을 선보인 것은 처음이다. 지난 19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입학식에서 AI 총장이 신동렬 총장을 대신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첫 수업’(총장 훈사)을 진행한 것. 학생들이 AI 총장을 신동렬 총장이라고 생각하며 훈사를 듣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에 진짜 신동렬 총장이 나타났다. 신동렬 총장이 축사를 하려고 하자 AI 총장이 “이미 축사를 내 가다 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신동렬 총장은 취임 이후 “AI의 활용 여부가 모든 학문의 성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다. 학생들이 AI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대학이 노력해

야 한다”고 항상 강조해왔으며, 이날 입학식에서 AI총장을 통해 신입생들에게 그 점을 확실하게 각인시킨 셈이다. 동국대는 ‘줌’과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입학식을 개최했다. 사전 신청한 1000여 명의 학생 중 100명의 학생이 줌을 통해 무대 위 대형스크린에서 화상으로 대면하고, 3000여 명의 학생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누구나 평생 한 번 뿐인, 소중한 입학식인데 올해 입학식은 우리 대학 최초로, 이렇게 비대면 원격화상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했지만, 이 또한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문화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울산대도 24일부터 26일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입학 환영사를 비롯해 오리엔테이션 안내 등 대학 생활을 안내하는 영상을 게시하며 신입생을 맞이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내달 서울에 유·초·중 22개교 신설된다

병설 16곳 등 유치원 19개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강빛초·강빛중 '이음학교' 운영

오는 3월부터 서울 내 유치원 19교와 초등학교 1교, 중학교 2교가 새롭게 문을 연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1일자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등 총 22개교가 신설되고 25일 밝혔다. 신설되는 유치원은 총 19개원이다.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되는 매입형유치원 1개원, 단설유치원분원 1개원, 단설유치원 1개원, 병설유치원 16개원이다. 매입형유치원인 솔방울유치원(송파구 오곡로)은 2019년 공모·선정을 거쳐 유아 모집을 완료하고 2021년 3월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 신설된다. 이번 신설되는 솔방울유치원을 포함해 매입형

유치원은 총 15개원이다. 성북구 송인로에 위치한 좋은소리유치원분원은 지난해 3월 솔가람유치원분원(송파구 위례순환로) 이후 두 번째로 설립되는 분원으로, 유치원 부지(677.2㎡)와 건물(541.4㎡) 약 36억원 상당을 민간 재개발조합에서 기부채납받아 설립하는 첫 '민간협력형'유치원이다. 분원은 소규모 시설에서도 효율적인 영이 가능한 서울형 중·소규모 단설유치원 모델이다. 그 외 우이초등학교(강북구 삼양로) 여유부지 내 단설유치원 1개원(우이유치원)과 봉화초등학교 등에 병설유치원 16개원을 신설한다. 유치원과 함께 신학기 신설 개교하는 초·중학교는 3개교로, 초등학교 한 곳과 중학교 두 곳이다. 강동구 고덕강일개발지역에 강빛초

등학교 강빛중학교, 영등포구 신길재개발지역에 신길중학교가 들어선다. 특히, 강빛초등학교와 강빛중학교는 초·중 통합운영학교인 '이음학교'로 운영된다. 이음학교는 서울형 통합운영학교의 공식 명칭으로 학교급이 다른 2개 이상 학교(동일부지 또는 인접한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해 운영하는 형태다. 또한, 강빛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함께 개원에 유·초·중을 아우르는 학교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에는 해누리초·중(송파구 송파대로)과 서울체육중·고(송파구 강동대로)가 이음학교로 운영 중에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 차질 없는 개교를 위해 개교 4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필수요원을 조기 검임 발령 조치했다. /이현진 기자



한신대가 23일 '학생상담센터 이전 및 인권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신대

한신대, 학생상담·인권 위한 센터 개소

단독 공간으로 마련
한신대가 학생상담과 인권보호를 위한 독립된 상담 공간을 마련했다. 한신대학교는 지난 23일 중앙도서관에서 '학생상담센터 이전 및 인권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 공간은 학생복지처 학생상담센터가 주관하고, 이미옥 교수가 인테리어 디자인 재능기부를 해 꾸려졌다. 연구홍 한신대 총장은 “대학의 큰 기능은 자신을 발견하는 길이다. 학생

상담센터와 인권센터는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소중한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게 도와줄 것”이라며 “한신대는 지식, 기술, 정보만이 아닌 ‘나를 찾게 해 주는 대학’으로 발전하겠다”고 전했다. 센터장인 김동심 교수는 “학생상담센터가 단독 공간을 갖게 돼 앞으로 학생들은 전문 상담 선생님께서 힘든 점과 고민을 편히 터놓을 수 있게 됐다”며 “인권센터가 인권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대학생 “원격수업이니 등록금 감면해야”

새학기 비대면 수업 97% 달해
257만원 희망, 실제 납부 402만원

대부분 대학이 비대면 수업으로 새학기 시작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해 이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올해 1학기 등록금 평균 납부금액인 402만원에서 36% 감면한 257만원 정도를 적정 등록금이라고 말했다. 인크루트가 25일 새학기 비대면 개강에 따른 등록금 실태를 주제로 한 조사 결과, 새학기 비대면 수업이 예정됐다고 답한 비율은 97.1%에 달했다. 전면비대면이 55.1%, 대면과 비대면 혼용이 42.0%로 구분된다. 대면수업은 2.9%에 그쳤다. 또한 응답자들의 새학기 총 수강 학

점은 평균 14.4점, 그 중 비대면 과목 수강 학점은 11.6점으로 원격수업이 전체 개설학점의 8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학교에 직접 출석하는 일수 역시 주 1.4일에 그쳤다. 반면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에 안가는 일수는 주 4.1일로 3배가량 높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등록금에 대한 불만 역시 새어나왔다. 새학기 등록금 조정에 대해 의견을 묻은 결과 ‘코로나 이전(2019년) 수준보다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 92.6%로 압도적이었다. 많은 대학이 올해 1학기 학부 등록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지만, 대학생들은 코로나 이전 보다 더욱 낮아지길 원하고 있는 셈이다. 전공별로는 인문(97.4%), 자연과학(97.1%), 공학

(94.9%) 계열 순으로 감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주관식으로 확인한 결과 응답자들이 새학기 납부한 등록금은 평균 402만원이었다. 이에 반해 실제 희망하는 등록금은 257만원으로 납부금 대비 약 36% 가량의 감감을 바라고 있었다. 끝으로 원격수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여론은 ▲공·부정 혼합(11.1%) ▲공정(33.1%) ▲부정(55.8%)으로 나뉘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등록금이 아까움(16.8%) ▲수업 집중력 저하(16.2%) ▲온라인 강의 질 저하(13.9%) ▲실습이 불가한 점(9.6%) 등이었다. 반면 ▲등하교에 소용되는 시간 및 비용이 절약(25.8%) ▲공간 제약 없이 수강 가능(20.5%) ▲온라인 예·복습 수월(15.4%) 등은 긍정요인으로 꼽혔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총 614명이 참여했다. /이현진 기자

성신여대, '비교과 교육과정 성과 전시회'

내달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
성신여자대학교 교육혁신원은 2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020학년도 비교과 교육과정 성과전시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성과전시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대학과 학생이 역량 증진을 위해 노력한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성과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성신여대 교육혁신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열린다. 주로 2020학년도에

운영한 다양한 비교과 교육과정의 성과, 우수사례, 학생 성과와 함께 기초 분석 및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성신여대 강태훈 교육혁신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학생들에게 양질의 비교과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단과대학, 학과, 행정부서에서 다양한 학습방법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성신여대 교육혁신원 비교과통합관리팀에서는 성신 6대 핵심역량을 고르게 함양할 수 있도록 비교과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